

영어어문교육 9권 특별호 2003년 가을

초점화(Focalization)와 화제화(Topicalization)로 분석한 영어 도치 구문

강 영 아
(충남대학교)

Kang, Young-Ah (2003). The analysis of inversion construction by Focalization and Topicaliza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Special Edition)*, 131-148.

This paper, conducted within the GB framework, investigates *inversion* phenomena in the functional categories, Focalization Phrases and Topicalization Phrases. The leading idea of this paper is that formal feature checking in these two functional categories is mostly responsible for *inversion* in which either verb or auxiliary verbs appear in front of subjects and also it will try to find an answer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features that trigger the inversion?" and "Can all the inversion constructions explained by Haegeman's Focalization & Topicalization?" My discussion is largely based on English inversion constructions such as *wh*-inversion, negative inversion, and adverbial inversion. Also I will show there are some problems in Topicalization and Focalization analysis to explain some inversion constructions and present Rizzi(1999)'s analysis for those problems.

[Focalization/Topicalization/Adverbial inversion,
초점화/화제화/부사도치]

1. 서론

도치란 두 표현의 순서가 바뀌는 이동 과정이며 특히 의문문에서 주어 앞에 *can* 과 같은 조동사가 오는 운용과 연관되어져 자주 사용된다고 정의된다. 특히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 단어를 정상적인 어순이 아닌 위치에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문두에 오는 경우를 전치라 불러 좁은 의미의 도치와는 구분하고 Radford는 이 전치 현상을 일종의 이동 운용이라고 정의했다 (Radford, 1997, p. 268). 다시 말하면,

전치관 한 구성성분을 구나 문장 안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1) (a) *Bitterly did we repent our decision.*
 (b) *Dates, I could never remember.*

위의 예문 1a)는 전치가 도치를 동반한 문장인 반면 1b)의 예문은 전치만 일어났을 뿐 도치는 일어나지 않은 문장이다.

변형 생성 문법 초기 단계에서 Chomsky는 *Syntactic Structures* (1957)에서 이미 부정 어구와 의문문 두 구문이 근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졌다고 보고 있는 데 특히 의문 요소와 부정요소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가서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되는 공통적인 속성을 통사적 분석으로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의문문의 분석과 부정문의 분석을 긴밀히 연관시키려 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Haegeman이 부정문과 의문문의 유사성을 도치라는 통사 현상으로 논의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특히 부정요소와 의문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사구 등이 문두로 나가서 주어와 조동사 혹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도치현상 전반을 살펴보고 Haegeman이 주장하는 초점화(Focalization)¹⁾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 1) 어떠한 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적인 부분을 초점이라고 부른다.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칭하는 전제(presupposition)와 대립하는 개념이며, 보통 가장 강한 문장 강세(sentence stress)가 주어진다. 초점의 표시에 관해서 Chomsky (1976)는 초점요소를 LF에서 일종의 운용자로서 다룰 것을 제안하고, Rochemont (1986)은 그 취지를 발전시켜 LF이동의 일종인 초점인상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1) 초점 인상

$[s \dots t[+F] \dots] \rightarrow [s_t [+F] [s \dots t_t \dots]]$

이 규칙에 의하면 초점요소로 자질 [+F]가 부여되어 있는 요소는 LF에서 초점인상을 받아 S에 부가된다.

- 2) (a) $[s \text{ John } [+F] \text{ is jogging today}]$.
 (b) $[s \text{ John}_t [+F] [s \text{ t}_i \text{ is jogging today}]]$.

LF표시 2b)에서, 부가되어 있는 *John*이 초점운용자, 그 흔적이 변항으로 해석되며, JOHN=the *x* such that [*x* is jogging today](오늘 조깅하고 있는 사람은 *John*이다)라는 해석이 얻어진다.

초점요소가 하나의 운용자로서 LF 이동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점 요소가 *wh*-이동과 평행적인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 3) (a) *Who did $[s \text{ the woman he}_i \text{ loved betray } t_i]$?
 (b) *The woman he_i loved betrayed JOHN_i.

살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다.

Haegeman은 Zanuttini와의 연구논문(1997)에서 NEG-규준(NEG-criterion)을 만들어 냈으며 부정 도치, 부정 전치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했는데, 특히 Klima (1964) 이후 문제되어왔던 도치가 이루어지는 전치된 부정어구와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치된 부정어구사이의 통사 현상을 초점화(Focalization)와 화제화(Topicalization)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 2) (a) With no job would Mary be happy.
(b) With no job, Mary would be happy.

위의 예문 2a)는 부정어구가 앞으로 나가 문장 도치가 일어난 경우이며 2b)는 부정어구가 문두로 전치되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치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다. Haegeman은 2a)와 2b)의 차이를 전치된 PP *with no job*이 각기 다른 착지점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도치가 일어난 2a)의 경우는 PP *with no job*이 [Spec, FocP]로 이동하고 도치가 일어나지 않은 2b)의 경우는 [Spec, TopP]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의 초기 논문에서처럼 부정문과 의문문의 통사적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우선 Haegeman의 부정어 규준(Negative Criterion)을 살펴본 후 초점화와 화제화로 부정문과 의문문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분석에 문제점은 없는지 논해보기로 하자.

II. 초점화와 화제화로 분석한 영어 도치 구문들

1. 부정문

부정문과 의문문의 유사성을 얘기하려했던 Haegeman은 WH-규준(WH-criterion)과 비슷하게 부정어 규준(NEG-criterion)을 만들었는데 편의를 위해 이 두 기준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a)는 약교차 현상의 예이며, *he*가 *who*에 의해 결속되는 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초점요소가 LF에서 글의 첫머리로 이동된다고 생각하면, 3b)의 LF표시는 4)와 같이 된다.

- 4) [_S JOHN_i [_{+F} [_S the woman he_i loved betrayed t_i]].

이 LF 표시는 *wh*-이동이 적용된 3a)의 구조와 완전히 평행적이다. 따라서 LF에 초점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3b)와 같은 예를 약교차현상의 사례로서 통일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해진다. 초점에 관련된 논의로서는 Gueron(1980), Rochemont and Culivover(1990) 등이 있다.

3) WH-criterion

- (a) A WH-operator must be in a Spec-Head configuration with an X-[WH]
- (b) An X-[WH] must be in a Spec-Head configuration with a WH-operator.

4) NEG-criterion

- (a) A NEG-operator must be in a Spec-Head Configuration with an X-[NEG]
- (b) An X-[NEG] must be in a Spec-Head configuration with NEG-operator.

즉 WH-규준이 *wh*-이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부정어 규준 역시 부정어구 이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즉 문장 전체 영역(sentential scope)을 가진 모든 부정어 구성소는 부정 자질을 가진 핵과 지정어-핵 관계를 얻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5) (a) Nothing have I seen that could rival the pyramids.
- (b) *Nothing I have seen that could rival the pyramids.

Haegeman은 5a)의 문장은 부정어규준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도치된 조동사가 부정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문장 앞 [Spec, FocP]로 나간 부정어구 *Nothing*과 지정어-핵 관계를 얻기 위해 [Foc, FocP]로 이동해 나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부정어구가 앞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장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였는데 아래의 각 b) 문장들이었다 (Quirk et al, 1985, p. 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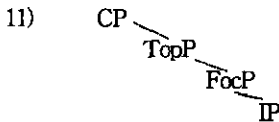
- 6) (a) With no job would Mary be happy.
- (b) With no job, Mary would be happy.
- 7) (a) With no clothes does Robin look attractive.
- (b) With no clothes, Robin looks attractive.
- 8) (a) In not many years will Christmas fall on a Tuesday.
- (b) In not many years, Christmas will fall on a Tuesday.

이제까지 도치를 일으키는 전치된 부정 구성소가 문장전체에 영역을 가지면 문장부정의 의미를 가지며 부정문을 이끈다고 보았다. 이런 유형의 부정문을 문장부정(sentential negation)이라 하며 도치를 일으키지 않는 문장은 국부부정(local negation)이라 하여 문장 전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는 부정어구가 전치되어 나간 문장이 문장부정인지 국부부정인지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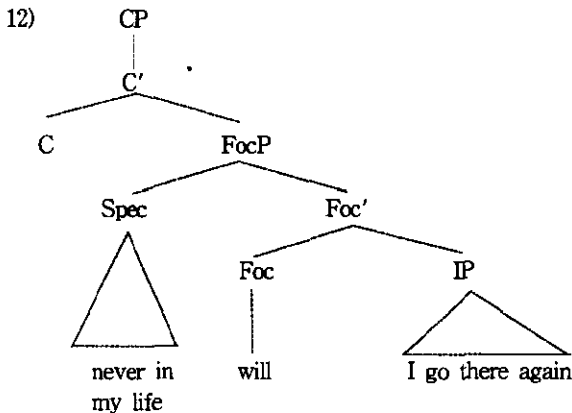
수 있다 (Quirk et al, 1985, p. 790).

- 9) (a) With no job would John be happy and neither /*so would Mary.
 (b) With no job, John would be happy and so/*neither would Mary.
- 10) (a) Not often does Jack attend parties, and neither does Bill.
 (b) Not long ago, John bought a house, and so did B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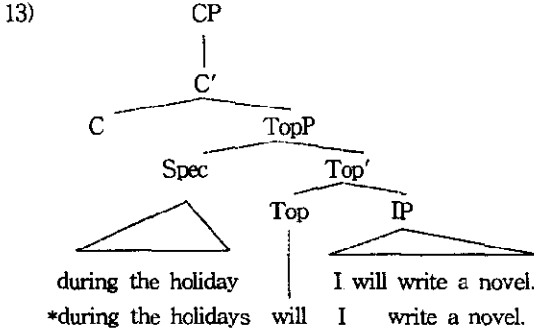
Haegeman은 9a), 9b)와 10a), 10b)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각 (a)의 문장에서 전치된 전치사구와 부사구는 초점운용자이고 각 (b)에서는 전치된 전치사구와 부사구가 화제라는 것이다. 즉 전치사구와 부사구가 (a)와 (b)에서 각기 다른 착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도치가 일어나는 (a)의 경우는 FocP의 지정어 자리로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b)의 경우는 Top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분리 CP 가설에 따라 CP는 아래와 같이 FocP와 TopP로 나누어진다.



Haegeman의 분석에 따르면, 도치가 일어나는 영어 문장에서, 전치된 부정 구성소는 다음과 같이 FocP의 지정어로, 그리고 조동사는 초점으로 이동한다.



다음과 같이 도치가 일어나지 않은 영어 문장에서 TopP의 지정어로 화제화된 구성소가 이동해나가고, [Top, TopP]가 추상적 화제화 자질을 가지기 때문에 조동사는 핵의 자리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다음의 예문들은 내포문에서 일어나는 문장 도치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Haegeman, 2000, p. 28).

- 14) (a) Lee said [that at no time would she agree to visit Robin.]
(b) John swore [that under no circumstances would he accept their offer.]
- 15) (a) Lee wonders [why in no way would Robin volunteer.]
(b)*Lee wonders [in no way would why Robin volunteer.]
- 16) (a) I stress [that if you call, nothing that I find will I keep.]
(b) *I stress [that nothing that I find, if you call, will I keep.]
- 17) (a) He said [that beans, never in his life had he been able to stand.]
(b) *He said [that never in his life had beans, he been able to stand.]

14)의 예문들은 내포문안에서 부정어구가 문두로 오는 경우에 *that*은 [C, CP]로 이동하고 부정어구는 [Spec, FocP]로 각각 이동하기 때문에 정문이 되며 15)의 예문은 부정어구 즉 초점화된 요소와 *wh*-어구사이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내포문안에서 *wh*-어구는 [Spec, CP]로 이동하고 초점화된 부정어구는 [Spec, FocP]로 이동하므로 15a)는 정문이 되나 15b)는 CP와 FocP의 순서가 바뀌어 있으므로 비문이 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6)-17)의 예문이다. 이들은 화제화된 구성성분과 부정

요소 구성성분간의 순서/*wh*-구와 부정요소 구성성분간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6a)에서 부정요소가 와서 *will*이 도치된 구조 앞에 화제화된 구성성분 *if you call*이 오는 경우는 정문이 된다. 그러나, 그 반대 순서 즉 16b)에서 전치된 부정요소 구성성분과 조동사 사이에 화제화된 요소 *if you call*이 오는 경우는 비문이 된다. 그런데, 16b)와 17b)를 살펴보면, *nothing that I find*나 *never in his life*와 같은 부정어구가 FocP입에도 불구하고 TopP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예문이 비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11)의 수행도가 옳다면 15b), 16b), 17b)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의문문

이번에는 의문문에 Haegeman의 이론을 적용시켜 도치현상을 설명해 보기로 하자. 우선 전치된 *wh*-구의 왼쪽에 부가될 수 있는 예문들을 살펴보자.

- 18) (a) To John, which books did you give?
(b) On the table, how many books did you put?
(c) Tomorrow, where did you plan to go?

위의 예문들은 화제화된 예문들로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 *wh*-구가 *wh*-구의 왼쪽에 화제화될 수 있는 반면에, *wh*-구는 전치된 또 다른 *wh*-구의 왼쪽에 화제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 19) (a) *To whom which books did you give?
(cf. Which books did you give to whom?)
(b) *Where how many books did you put?
(cf. How many books did you put where?)
(c) *When where do you plan to go?
(cf. Where do you plan to go when?)

만약 *To whom, Where, When*이 초점이라고 분석한다하더라도 Haegeman이 제시한 11)에 의해 화제가 초점 앞에 와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비문이 된다. 또한 GB이론에서는 WH-규준을 이용해 위와 같은 문장이 비문임을 설명하였다.

20) WH-criter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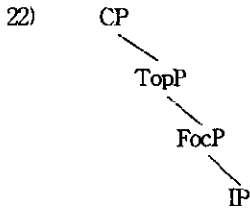
- (a) A WH-operator must be in a Spec-Head configuration with an X-[WH]
(b) An X-[WH] must be in a Spec-Head configuration with a WH-operator.

위의 예문 19)를 살펴보자. 첫 번째 이동한 *wh*-구가 C[+*wh*]는 Spec[+*wh*]와 일치해야 한다는 WH-criterion을 이미 만족시켰기 때문에 두 번째 이동한 *wh*-구인 *To whom, Where, When*은 더 이상 20)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비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Haegeman은 또한 초점화로 의문문을 분석하였는데 아래의 문장이 왜 비문이 되는지도 설명하였다 (Haegeman and Gueron, 1999, p. 345).

21) *Why did, during the holidays, they invite Tom?

위의 예문을 11)의 수형도로 분석하여 그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데 편의상 다시 반복하여 그려보자.



21)을 22)의 수형도로 설명해 보면, *why*는 [Spec, FocP]로 이동하고 *during the holiday*는 화제화된 요소로 [Spec, TopP]로 이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1) 예문에서는 *why*는 [Spec, TopP]의 위치에, *during the holiday*는 [Spec, FocP]의 위치에 오게 되어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Haegeman의 분석에 의하면, *wh*-이동에서는 착지점(landing site)이 두개 있는데 내포절에서는 이동해나간 *wh*-구성소가 [Spec, CP]자리로 가고 주절에서는 *wh*-구가 [Spec, FocP]자리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다른 착지점은 *wh*-구와 화제화된 구성소 순서에 대해 설명해준다. 화제화된 구성소는 내포 의문문에서는 *wh*-구 다음에 오고 주절 의문문에서는 *wh*-구 앞에 온다. 다음의 문장들의 문법성과 비문법성이 이를 설명해 준다 (Haegeman, 2000, p.27).

23) (a) I wonder why during the holidays they invited Tom.

(b) During the holidays, why did they invite Tom?

24) (a) During my sabbatical, on no account will I read e-mail.

(b) *On no account during my sabbatical will I read e-mail.

25) (a) Never in my life beans will I eat.

(b) *Never in my life will beans I eat.

(c) Beans, never in my life will I eat.

그러나 위의 예문 25a)의 문법성은 이는 *never in my life*가 화제이고 *beans*가 초점이라고 설명해야 정문임이 설명가능하나 *never in my life*는 부정어구로 문장 앞으로 전치되어 문장이 도치를 일으키는 초점이며 *beans*의 경우는 대개 화제로 전치는 가능하나 문장의 도치를 일으키지 않는 구문으로 Haegeman의 11) 수형도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의문문과 함께 나타나는 부정어구 전치 구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26) (a) *On no account where should I go?

(b) *Where on no account should I go?

27) (a) With no job, where can we go?

(b) *Where with no job, can we go?

위의 예문 26a)와 26b)는 어느 경우든, *wh*-어구와 부정어구가 동시에 [Spec, FocP]로 이동하여 문장의 도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비문이 되고 있으며 27a)는 화제화와 초점의 순으로 문장이 정문이 되고 27b)의 경우 26)의 문장과 마찬가지로 *wh*-어구와 부정어구가 동시에 [Spec, FocP]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비문이 됨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3a)의 예문에서처럼 *wh*-어구가 내포절의 의문문에서는 CP의 지정어, 24)~27)의 예문에서처럼 모절에서는 FocP의 지정어라는 각기 다른 최대투사로 이동해야 한다는 비밀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문제점 역시 발견된다.

3. 방향성 부사구(directional adverb)

이제 도치를 일으키는 부정문/의문문과 그렇지 않은 부정문/의문문을 초점화와 주제화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분석한 Haegeman의 이론을 확대시켜 일반화해 보겠다. 도치를 일으키는 요소는 [Spec, FocP]로 이동하고 도치를 일으키지 않은 요소는 [Spec, TopP]로 이동한다는 Haegeman의 분석을 수용하면서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8) (a) Here's the milkman.

(b) Here comes your brother.

(c) There goes your brother.

(d) Down came the rain.

- (e) Up went the flag.
- (f) Away ran there terrified boy.
- (g) Slowly out of its hangar rolled the gigantic aircraft.
- (h) Equally inexplicable was his behaviors to close friends.

위의 28)의 예문들을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28)은 흔히 'there' 'here' 'down' 'up' 'away' 'slowly' 등과 같은 부사들이 문두로 이동하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예문들이다.

전통문법에서 흔히 유도부사라 일컫는 *there* 구문은 두 가지 용법으로 크게 나누어 쓰여 진다. 하나는 존재를 나타내는 *there*(*existential there*)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치를 나타내는 *there*(*locative there*)이다. 아래의 예문에서 첫 번째 *there*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두 번째 *there*는 장소의 의미를 나타낸다.

- 29) (a) Have you ever been to Kyongju?
 (b) There are many temples t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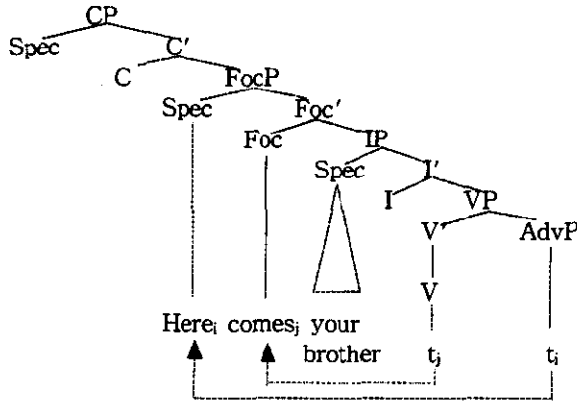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장소 *there*(*locative there*)는 강세를 받아 /ðeð/ 혹은 /ðə/로 발음되는 반면 존재 *there*(*existential there*)는 강세를 받지 않아 /ðə/로 발음된다. 장소 *there*가 강세를 받는 이유는 실제로 질문의 답으로 혹은 방향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존재 *there*가 강세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의미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강세를 받아 초점화될 수 있는 장소 *there* 구문을 분석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here* 역시 방향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강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there*와 마찬가지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존재 구문 *there*는 *there* 삽입 규칙이 적용되고 장소 *there*는 이동규칙이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Cattell, 1984, p. 148).

편의상 위의 예문 28) (a) (b)를 다시 써보자.

- 30) (a) Here is the milkman.
 (b) Here comes your brother.

30a)의 경우, 'the milkman' 과 동사 'is'가 도치된 경우이고 이와 유사하게 30b)의 경우는 부사 'here'가 문두로 전치되면서 주어인 'your brother'가 동사 'comes'와 도치된 경우이다. 30b)를 수형도로 나타내보면, 전치된 부사가 FocP의 지정어 위치로 가고 지정어-핵 일치에 의해 Foc로 동사가 이동한다.

31)



그렇다면 위의 예문들이 의문문이나 부정문, 화제화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어떠한지 30a)의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

의문문과 화제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우선 살펴보기로 하자.

32) (a) Why is the milkman here?

(b) *Why here is the milkman?

(c) *Why the milkman is here?

33) (a) I wonder why the milkman is here?

(b) *I wonder why here is the milkman?

34) (a) *He said that with some milk, here is the milkman.

(b) He said that the milkman is here with some milk.

Haegeman은 의문문의 경우 *wh*-구는 내포절에서는 [Spec, CP]로 주절에서는 [Spec, FocP]로 이동을 주장해 앞에서 살펴본 예문이 정문이 되는 것을 설명해주었는데 편의상 반복해서 써보기로 한다.

35) (a) ?Lee wonders whether at no time at all would Robin volunteer.

(b) Lee wonders why in no way would Robin volunteer.

하지만 Haegeman의 분석에 따르면 주절에서 도치를 유발하는 *Here* 역시 FocP의 지정어 위치로 가야하며 정문 32a)와 33a), 비문 32b) 32c)는 그 문법성의 여부를 설명

할 수 있으나 33b)와 34a)의 비문법성은 설명할 수 없다. 그녀의 분석대로라면 내포절에서 *wh*-구는 [Spec, CP]로 이동하고 도출을 유발하는 *here*는 [Spec, FocP]로 가기 때문에 예문 33b)가 정문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되며, 예문 34a) 역시 *with some milk*는 화제화된 것으로 [Spec, Top]으로 이동해가고 *here*는 [Spec, FocP]로 이동해가서 정문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 36) (a) When does your brother come here?
 (b) *When here comes your brother?
- 37) (a) I wonder when your brother comes here?
 (b) *I wonder when here comes your brother.
- 38) (a) He said that by bus, your brother came here.
 (b) *He said that by bus, here came your brother.

36b)의 비문법성도 주절에서 *wh*-구는 [Spec, FocP]로 이동하고 *here* 역시 [Spec, FocP]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37b)의 경우는 Haegeman의 분석대로라면, 내포절에서의 *wh*-구는 [Spec, CP]로 이동해 나가고 *here*는 [Spec, FocP]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문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되며, 38b)의 경우는 내포절에서 화제화 다음에 *here*가 [Spec, FocP]에 와서 도출을 유발하는 정문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된다. 이는 위의 37b)와 38b)의 비문법성을 Haegeman의 분석은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그 밖의 방향성 부사 구문

만약 문장 동사가 단순 과거나 현재 시제라면 공간 및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는 전치 될 수 있다. 이것은 전치사 범주에 있는 방향부사를 포함한다. 이 구조는 감탄문 진술에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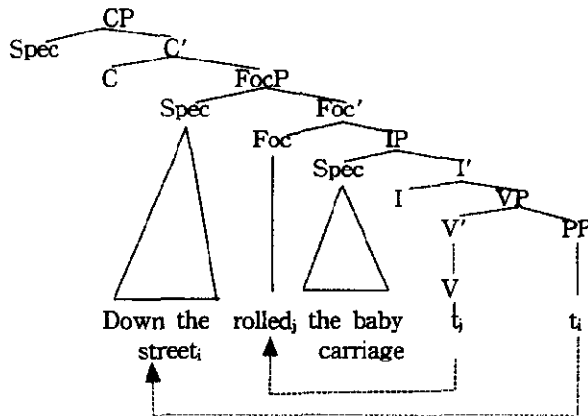
- 39) (a) In came John!
 (b) Down came the rain.
 (c) Down the street rolled the baby carriage!
 (d) Up went the flag.
 (e) Round and round spins the fateful wheel!

이는 *wh*와 부정어구 전치가 일어난 후 조동사가 두 번째 위치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하다. 방향성 부사의 전치를 Haegeman의 이론에 의해 분석해 보기로 하자. 위의 1)의 예문들 중 아래의 예문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40) Down the street rolled the baby carriage.

40)의 경우 'down the street'이 전치되면서 주어 *the baby carriage*와 동사 *rolled*가 도치된 경우이다. 40)을 수행도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41)



방향성 부사의 전치 역시 *wh*-구성소와 부정 구성소의 함께 일어날 수 없음을 다음의 예문들로 알아볼 수 있다.

42) (a) *When in did come John?

(b) *What down the street rolled?

43) (a) *I noticed that under no circumstances in came John.

(b) *I wondered at no time down the street rolled the baby carriage.

44) (a) *I noticed that what in came John.

(b) *I wondered what down the street rolled?

Haegeman의 분석에 따르면 *wh*-어구, 부정요소, 전치된 부사구 모두가 FocP의 Spec자리에 오게 되므로 초점 기준으로 의해 42), 43)의 문장이 비문이 됨을 올바르게

예견한다. 그러나 44)의 경우 *in*이 FocP의 Spec자리에 오고 문장이 도치되었으므로 정문이 됨을 예견하고 있으나 사실은 비문이 되며 Haegeman의 분석대로라면 내포절에서는 *wh*가 TopP의 Spec자리에 오고 *down the street*은 FocP의 Spec 자리에 오므로 정문이 되어야 하나 비문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5. Haegeman 분석의 문제점

Haegeman과 Zanuttini (1995)의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도치 현상들이 있었던 데 우선 장소어구 *here*의 구문을 통해 살펴보자.

- 45) a. Why is the milkman here?
 b. *Why here is the milkman?
 c. *Why the milkman is here?
- 46) a. I wonder why the milkman is here.
 b. *I wonder why here is the milkman.
- 47) a. He said that the milkman is here with some milk.
 b. *He said that with some milk, here is the milkman.

위의 45) - 47)의 예문 역시 Haegeman의 가설대로 분석해 보면 모절에서 도치를 유발하는 *here* 또한 FocP의 지정어 위치로 가고 종속절에서의 *wh*-구는 CP의 지정어 위치로 모절에서는 FocP의 지정어 위치로 가야한다고 설명하면 정문 45a)와 46a), 비문 45b)와 45c)는 그 문법성의 여부를 설명할 수 있으나, 46b)와 47b)의 비문법성은 설명할 수 없다. 그녀의 가설대로라면 내포절에서 *wh*-구는 [Spec, CP]로 이동하고 도치를 유발하는 *here*는 [Spec, FocP]로 가기 때문에 예문 45b)가 정문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되며, 예문 46b) 역시 *with some milk*는 화제화된 것으로 [Spec, TopP]로 이동해가고 *here*는 [Spec, FocP]로 이동해가서 정문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의 예문들로 다시 설명해 보자.

- 48) a. When does your brother come here?
 b. *When here comes your brother?
- 49) a. I wonder when your brother comes here.
 b. *I wonder when here comes your brother.

- 50) a. He said that by bus, your brother came here.
b. *He said that by bus, here came your brother.

48b)의 비문법성도 모질에서 *wh*-구는 [Spec, FocP]로 이동하고 *here* 역시 [Spec, FocP]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49b)는 Haegeman의 분석대로 라면, 내포절에서의 *wh*-구는 [Spec, CP]로 이동해 나가고 *here*는 [Spec, FocP]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문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되며, 50b)는 내포절에서 화제화 다음에 *here*가 [Spec, FocP]에 와서 정문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된다. 이는 위의 49b)와 50b)의 비문법성을 *wh*-구가 모질에서는 [Spec, FocP]로 내포절에서는 [Spec, CP]로 이동한다는 Haegeman의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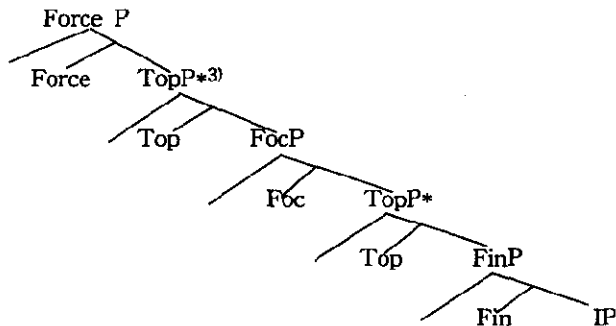
또한 Haegeman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구문 또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 51) I think that [in Paris] [during the holidays] he met a new friend.
(Haegeman and Gueron, 2000, p.356)

즉, *in Paris*와 *during the holidays*는 둘 다 화제화된 어구인데 이는 22)의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다.

Rizzi (1997)는 하나 이상의 구성소가 화제화되거나, 하나 이상의 구성소가 초점화된 이태리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수형도를 제시하였다.²⁾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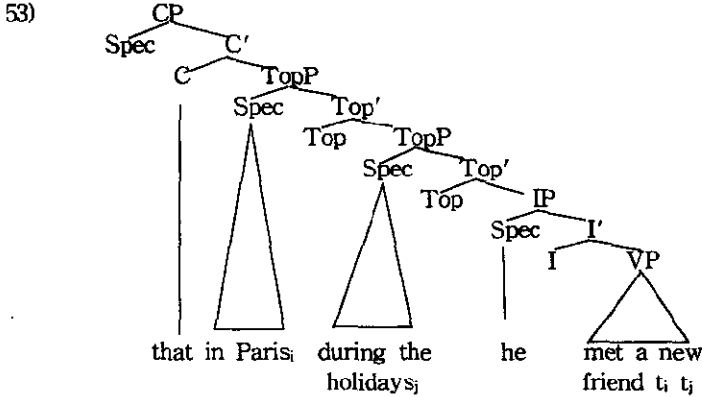


2) Rizzi(1997:290-1)을 참조하시오.

3) *는 반복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Rizzi (1997)가 제시한 위의 수행도는 앞서 Haegeman이 제시한 수행도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51)의 영어 예문을 설명할 수 있다.

화제화된 요소가 두 개 나타난 위의 예문이 정문인 것을 (255)의 수행도는 설명할 수 있다. 51)을 52)의 수행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이제 *wh*-어구를 내포절에서는 [Spec, CP]로 모절에서는 [Spec, FocP]로, 각기 다른 착지점을 가진다는 Haegeman의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영어 예문들을 편의상 다시 써 보기로 하자.

- 54) a. *I wonder why here is the milkman?
 b. *He said that with some milk, here is the milkman.
 c. *I wonder when here comes your brother.
 d. *He said that by bus, here came your brother.

54a)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내포절 안에서 *wh*-어구와 초점화가 일어나거나 화제화와 *wh*-어구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이다.

내포절 안에서 앞으로 전치되는 요소는 모두 [Spec, CP]로 이동한다는 Haegeman의 분석과는 달리 필자는 [Spec, TopP]로 이동해 나간다고 가정한다. 문장 도치에 관해 초점은 문장의 도치를 일으키고 화제는 문장의 도치를 일으키지 않고 있음을 앞의 모든 예문들에서 관찰하였다. 또한 내포절에서는 그 어떠한 요소가 내포절 안에서 문두로 이동해 나가도 문장 도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내포절 안의 전치된 요소는 모두 [Spec, TopP]로 이동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52)의 수행도를 받아들여 영어의 예문에 적용해 보고 위의 예문들이 비문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위의 두 가정-첫째, 내포절안의 전치된 요소는 모두 [Spec, TopP]로 이동하고 둘째, 화제화는 여러개 나타날 수 있다는 Rizzi의 분석을 받아들여 아래 54) (a)-(d)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위의 예문에서 *why*, *here*, *with some milk*, *by bus* 등이 모두 내포절 안에서 [Spec, TopP]로 이동해 나가고 화제화의 경우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포절에서 도치가 일어나고 있는 (a)-(d)의 예문들은 비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도치가 일어나는 모든 구문은 초점화로, 그렇지 않은 구문은 화제화로 일관성 있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강세를 받는 강조어구가 전치되어 문두로 나가면서 주어-조동사 혹은 주어-운용자의 도치가 일어나는 구문을 초점화로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구문을 화제화로 분석했던 Haegeman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화제화와 *wh*-구 혹은 화제화와 부정어구가 함께 문두에 나타나는 문장의 도치 구문과 그 문법성을 Haege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Haegeman의 분석은 화제화와 함께 나타나지 않는 내포절의 *wh*-구 전치에 의한 도치의 경우와 모절에서의 도치의 경우 착지점이 각각 CP와 FocP라는 다른 최대투사로 이동해야한다는 비일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Haege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치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은 [Spec, FocP]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은 요소들은 [Spec, TopP]로 이동한다고 일반화시켜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전치되면서 도치가 일어나는 예문들에도 적용시켜 보았는데 몇 개 문장의 비문법성은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Haegeman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화제가 여러 개 오는 영어 구문을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Rizzi (1999)의 분석을 제시하여 해결해보았다.

참고 문헌

- Baker, C. L. (1970). The syntax of English not: The limits of core grammar. *Linguistic Inquiry*, 22, 387-429.
- Bresnan, Joan (1991). Locative inversion and the architecture of universal grammar. *Language*, 70, 72-131.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Mouton: The Hague.
- _____. (1976). "Conditions on Rules of Grammar," *Linguistic Analysis* 2, 303-51. (Reprinted in Chomsky 1977a). 163-210.
- Coopmans, P. (1989). Where stylistic and syntactic processes meet: Locative

- inversion in English. *Language*, 65, 728-751.
- Freeze, R. (1992). Existentials and other locatives. *Language*, 68, 553-605.
- Gueron, J. (1980). On the Syntax and Semantics of PP Extraposition. *Linguistic Inquiry*, 11, 637-678.
- Haegeman, L. & Zanuttini, R. (1991). Negative heads and the NEG-criterion. *Linguistic Review*, 8
- _____. (1999). *English Grammar: A generative perspective*. Oxford: Blackwell.
- _____. (2000). Negative preposing, negative inversion and the split CP'. In Laurence R. Horn & Yasuhiki Kato (Eds.), *Negation and Polarity-syntactic and Semantic Perspectives*.
- Klima, Edward S. (1964). Negation in English. In Jerold Fodor & Jerold Katz (Eds.), *The Structure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_____ and Culicover, P. W. (1990). *English Focus Constructions and the Theory of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rk, R. S., Greenbaum, G., L.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adford, Andrew. (1997). *Syntactic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A minimalist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Higher

Kan, Young-Ah

충남대학교 일반대학 영어영문학과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Tel: (042) 821-6157

E-mail: k_youngah@hotmail.com

Received in Sept., 2003

Reviewed in Oct., 200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Nov., 2003